지방자치박람회, 26일 '여수'서 개최

29일까지 박람회장…전시부스 310여 개
지방자치 토론회 · 주민 참여마당 등 다양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장이 여수에서 마련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를 구호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다. 광역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여수가 처음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우수 지방자치 정책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향토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행사를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26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전시마당, 정책세미나, 우수사례 발표, 참여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의 꽃인 전시부스는 행사기간 4일 동안 운영된다. 지방4대협의체·전남도 특별홍보관 등 122개, 향토자원·마을기업 전시관 104개,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관 64개, 먹거리 장터 10개, 국제관 10개 등 총 310여 개다.

여수시도 홍보부스를 통해 대외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된 100인 시민위원회, SNS를 활용한 시민 소통행정, 만사형통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등을 소개한다. 홍보부스에서는 여수밤바다·낭만버스킹·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소개, 웹드라마 상영, 관광 안내 등도 진행된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를 통과한 쌍봉동과 중앙동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홍보부스를 연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26일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민자치 토론회 및 주민자치 특강을 실시한다. 27일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현장 특강이 이어진다.

또 이날은 박람회장 내 특설무대에서 지방자치 스무고개 넘기, 지방자치 도전 골든벨 등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오동도·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 견학,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버스킹, 시립예술단 공연, 공예품 만들기, 돌산갓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실현은 새 정부의 비전"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개최

범군민 참여 자유로운 토의 및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 공유

장흥군은 지난 9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업인, 사회단체,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이 함께 지역발전 추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적인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옴부즈만 황제인 규제개선 팀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라는 규제개선 사례 중심 강의를 시작으로 토론회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안건인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 ▲축산농가 발전 방안 ▲ 지역 미래 발전 방안(자유토론)에 대해 6개 분임 토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 요약하여 발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로 주차난과 인도 없는 거리 문제, 주변 상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통행 도로 해제 요구 등이 건의되었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기업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전남 동부권 첫 '옐로 카펫' 설치

안심초 주변…6개 학교 설치 후 점차 확대
아이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위한 목적

여수시가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초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옐로 카펫'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소호동 안심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횡단보도에 제1호 옐로 카펫이 생겼다.

시는 올해 6개 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여수 만들기 T/F팀'을 만들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옐로 카펫과 함께 15개 학교에 횡단보도 대기지점을 알리는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41개 학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옐로 카펫은 횡단보도 앞 인도 바닥부터 벽면까지 노란색 원뿔 형태로 조성되는 보행자 안전지대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며 야간에는 조명이 점등된다.

실제 지난해 교통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옐로 카펫이 설치된 뒤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시인성이 34%에서 95%로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옐로 카펫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초등학교 44곳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농촌지도자회 품목 양성 현장교육 실시

80여명 대상 견학 호응
실제 영농 접목 교육
"농업인 역량강화 최선"

무안군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새 품목 양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학습은 국립식량과학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술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국립식량과학원 류인석 기술위원은 「식량과학으로 이룬 농업, 다음 천년을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범 재배되고 있는 식량작물 전시포 53품종에 대한 품종별 현황 및 특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기능성 쌀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인 '큰눈'과 '눈큰흑찰1호'를 비롯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신동진', '해품', '백옥찰' 등 벼 품종에 대한 특성과 잡초 예방방법 등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소한의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 및 기능성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2018년 가고 싶은 섬 선정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가 2018년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진도군은 매년 8억원씩 5년동안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변 인프라 확충과 탐방로를 조성하고 펜션 신축 등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대마도를 청년이 돌아오는 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귀어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청년이 돌아 오는 섬'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대마도에 귀어 하는 청년들에게 어촌계 가입과 마을공동어장 등 진입 장벽 제한을 과감히 풀어 '가고 싶은 섬' 유일의 청년 유인 정책 섬 조성 계획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마도는 호안도로와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 마미동, 방막터, 시아시라고 불리는 세 곳의 아름다운 해변과 백사장이 위치해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